

군위안부·군함도문제 절충... 정상회담 물꼬 트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도 논의 “아베 총리 전후 70주년 담화 올바른 역사인식 반영돼야”

한국과 일본은 21일 도쿄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군위안부 문제와 일본 산업 혁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추진 등과 관련한 절충점 찾기를 시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의 외무성 이이쿠라(飯倉) 공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만나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일본이 요구하는 ‘사안의 최종 종결 보장’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또 일본 산업혁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라는 한국 측 요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뤄진 시설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법을 통해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타협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 서울에서 만난 이후 3개월여만에 재회한 두 장관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윤 장관은 아베 총리가 8월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에 대해서도 올바른 역사인식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두 장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사이의 첫 정상회담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했다.

한국 외교장관의 방일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당시 김성환 장관이 한중일 정상회담 수행차 방문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이번으로 6번째이지만 다른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하지 않는 순수 양자 외교 장관 회담은 양국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4월 일본 방문 예정이었지만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외무상이 그 직전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함에 따라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국제

적 합의 도출 여부를 떠나 개최 자체가 양국 관계 정상화에 의미있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장관은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예방하고, 같은 날 오후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리는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한다. 같은 날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와도 면담한다. /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1일 도쿄의 외무성 이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100원 택시’ 인기 상종가

7개월만에 11개 시·군 11만2400명 이용

하반기 순천시 등 3곳 추가

이낙연 전남지사의 대표공약인 ‘100원 택시’가 지난해 10월 21일 보성군에서 첫 시행된 후 7개월여만에 11만 2483명의 도민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성 등 11개 시·군의 주민들은 100원 택시를 타고 주로 병원이나 시장을 찾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휴일을 이용해 자신의 대표공약인 ‘100원 택시’가 운행되는 곡성군 고달면 탑선마을과 목사동면 담태마을을 찾았다. 이날 이 지사는 직접 100원 택시에 탑승해 운송 실재를 점검하고 마을 주민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병원과 시장에 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100원 택시’가 운행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다”며 이 지사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또

탑선마을의 한 주민이 “우리 동네는 한 마을인데 개울을 사이에 두고 곡성과 구례로 나뉜다”며 “구례도 100원 택시가 하루빨리 운행되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지사는 “구례군과 협의해 내년부터 100원 택시가 운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00원 택시’는 지난해 보성군과 화순군 등 2개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나주시 등 11개 시·군에서 본격 운행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순천시 등 3개 시·군이 추가로 운행하고 2016년부터는 희망하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100원 택시 사업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에서 최고의 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시민안전실 신설

재난예방과·국제교류담당관도

1실 3과 확대 조직 개편

광주시가 재난 대응체계 확립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에 나선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1실 9국 1본부 체계에서 시민안전실이 신설되는 등 2실 9국 1본부 체제로 바뀐다.

과(課)는 11관, 5담당관, 42과로 3개과가 늘게 된다. ‘중국어 친해지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담당관이 신설되고, 시민안전실 확대 개편에 따라 재난예방과와 재난대응과가 신설된다.

광주 U대회 종료 후 U대회지원국은 체육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19년 세계수영대회 지원을 위한 전담과(수영대회지원과)가 만들어 진다.

재난 현장인력 보강을 위해 소방안전본부에 119특수구조단이 신설되며, 구조구급과에 항공구조구급 업무와 특수·산악구조대 업무를 추가한다. U대회지원국의 경기시설과와 경제부시장 직속

규제개혁추진단 등 2개 과는 통폐합된다. 안전행정국은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9개 직속기관 및 16개 사업소는 변동이 없다.

조직개편과 광주 U대회 별도 정원으로 파견됐던 공무원 복귀 등으로 공무원 정원도 3236명에서 3331명으로 95명 늘어난다. 증가 인원은 정원대비 3%가량이다.

일반직은 3급 이상 1명, 4급 2명, 5급 12명, 6급 19명, 7급과 8급은 각 25명과 9명이 증가한다. 반면 9급은 15명이 줄어들어 전체 증가인원은 55명이다. 소방직은 전체 1126명에서 1166명으로 40명 늘었다. 직급별로 소방정 1명, 소방령 3명, 소방경 2명, 소방장 10명, 소방교 15명, 소방사 4명이 늘게 된다.

광주시는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광주시는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친환경차 기술 주도 광주 클린디젤 시설 본격 운영

진곡산단·오룡동에... 그린카진흥원 등 입주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광주 클린디젤 기반 시설이 지난 19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만1984㎡ 규모의 클린디젤 기반 시설에는 광주그린카진흥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 일반 기업체도 입주해 집적효과가 기대된다.

또 각종 연구 시험실을 구축해 지역 기업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광주 자동차산업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디젤 기반 시설은 2013년 7월 공사를 시작해 광산구 진곡산단과 북구 오룡동에 총 연면적 1만6047㎡ 규모로 지난 3월 말 완공됐다.

이곳에는 일반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공간도 마련돼 부품소재 실험실에 구

축 중인 실험 장비를 사용하고 연구기관의 직·간접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클린디젤 기반 시설 구축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고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진곡산단 내에는 광주그린카진흥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 오룡동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혁신 연구·지원기관이 입주해 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기업 지원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수소차 허브도시 조성사업 등을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완성차 생산기지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품업체

를 육성·유치하고, 친환경 파워트레인 기술, 차량 경량화 등의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특수목적자동차, 튜닝, 전동, 센서, 광융합 등 핵심 융합산업과 미래의 신기술을 발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소재부품 개발과 기업 지원을 목표로, 클린디젤 핵심부품소재의 기술개발·경량소재부품 평가·전문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클린디젤 기반시설 준공으로 본격적인 친환경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체들이 실험실 근처에 입주해 급변하는 자동차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재정 개선 노력 지자체

지방교부세 더 준다

정부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 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열심히 펼치자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지급 기준에서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기존 150%에서 180%까지 30%포인트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3개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다. 행정자치부는 또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해 지자체 스스로 경약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인건비는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해 초과 지출에는 페널티를, 절감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의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